

청렴의 진정한 의미

‘청렴은 소수의 권력층만 지켜야 하는 것일까?’

보통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청렴에 대해 사회로부터 더 큰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만 청렴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렴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받는 위치가 아니어도 청렴은 자신을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떳떳하기 위해서 말이다. ‘젊은이들에게 배우는 청렴’ 속 화자의 아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학생회장이라는 권력을 얻기 위해 모든 후보가 돈으로 표를 사려고 하는 상황에서 화자의 아들은 곳곳이 정직하게 선거에 임한다. 다른 후보들처럼 돈을 써서 회장이 된다면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돈이 회장이 되는 것이며 자신은 그런 표는 단 한 표도 필요 없다고 말한다.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쉽게 나올 수 없는 말이기도 하다. 권력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기 위해 현대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단이 바로 돈이다. 이 돈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꽤나 많다. 수기 속 등장하는 다른 후보들도 이러한 현실을 알기 때문에 돈을 써가면서 학생회장 선거에 임한 것이다. 하지만 화자의 아들이 말하듯이 돈으로 얻은 권력은 진정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애초에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돈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돈이라는 권력으로 다른 권력을 얻고, 그 권력으로 또 다른 권력을 얻는 행태는 잘못된 것이다.

화자의 아들과 같이 대학생인 나도 모교에서 매년 학생회장 선거를 경험해왔다. 다양한 후보들이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그들 중 대다수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회장·부회장 등 학생이 얻을 수 있는 권력을 얻어 본 경험이 있다. 나는 그런 후보들 중 일부가 수기 속 후보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다. 당시 나는 단지 그 사람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 이외에도 다른 생각이 들었다. 그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 돈으로 권력을 얻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며, 그 경험이 토대가 되어 이번에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해졌다. 그런 행동들은 결국 과거부터 형성되어 온, 돈으로 권력을 사는 것을 묵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수기는 사회적 묵인 속에서 청렴이 빛난 경우를 보여줬다. 그래서

나는 이 수기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다른 이유는 화자의 아들뿐만 아니라 화자와 그녀의 남편 또한 청렴에 대해 깊은 생각을 보여줬기 때문이었다. “청렴을 가르쳐야 할 부모들이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할 젊은이들에게 부정, 부패부터 가르친다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뻐뚱어지는 법이요.” 라는 화자 남편의 말에서 청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청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편안과 욕심을 이기지 못해 ‘나까지는 괜찮겠지. 우리 아이부터 청렴을 지키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청렴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은 청렴에 대해 무지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청렴은 생각만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수기 속에서 화자는 처음엔 아들, 남편과는 다른 생각을 보인다. 화자는 아들이 유세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에 학교에 찾아간다. 그리고 그 곳에서 다른 후보의 어머니가 본인의 자식을 학생회장으로 뽑아달라며 도서상품권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모습을 본 후 과거 아들의 친구에게서 “다른 학생회장 후보들은 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학생들에게 밥이나 술을 사주는 등 돈을 써가면서 물밑작업을 하는데 화자의 아들만 ‘청렴한 선거’ 를 추구하며 지켜보고만 있다” 라는 말을 들었던 것을 떠올린다. 그래서 화자는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어려운 형편이지만 백만 원을 아들에게 건넨다. 아들이 화를 내며 그것을 거절함에도 화자는 그저 세상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하며 속상해한다. 화자의 이런 모습은 잘못됨을 알면서도 부패에 대한 사회적 묵인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 화자 역시 아들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청렴을 등지려 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청렴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현대 사회 속 많은 사람들이 청렴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묵인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시대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세상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면 다수와는 다르더라도 자신의 신념대로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청렴의 시작이다. 물론 이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어려운 만큼 아직은 이런 사람이 드물다. 그러나 화자의 아들이 학생회장

에 당선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의 사람들도 청렴을 원하고 있다. 청렴에 대한 마음이 작지만 의미 있는 청렴의 시작으로 나타난 것이다. 청렴을 추구하는 후보를 알아보고 그 청렴함에 한 표를 준 사람들은 청렴을 간접적으로 실천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기 후반부에 화자는 아들의 당선 후 자신을 찾아와 관행이라며 돈을 건네는 학생식당 운영자를 거절한다. 그리고 아직도 이러한 관행이 만연하며, 이것이 얼마나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느낀다. 평소 나도 화자와 비슷한 생각을 한다. 어릴 때부터 하루가 머다 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패에 관련된 뉴스들을 보고 들으면서 자라왔다. 그때마다 씩씩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일상과는 너무 동떨어진 일이라 체감이 안 되기도 했다.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와 보니 나의 일상 속에서도 청렴을 지키지 않고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이런 경험은 뉴스에서 부패를 보고 들을 때보다 나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꼭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청렴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 상대적으로 작은 권력이라도 사람들은 이기심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청렴을 등지기도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청렴을 저버리고 얻은 권력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로운 것일까? 아니다. 물론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명예나 존경,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과 관계 같은 것들을 전혀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 자체만 원했던 사람들은 권력을 얻었으니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청렴하지 못하게 얻은 권력은 결국 그 사람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그 후 계속해서 돈으로 더 큰 권력을 얻는다 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퇴보하게 된다. 반대로 권력을 얻지 못했어도 청렴을 지키며 최선을 다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간 자신을 느낄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청렴은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해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낸 청렴은 나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 그리고 사회에까지 퍼져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다 같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청렴의 의미를 모두가 한 번 더 되새기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